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 없다!

윤상직 장관, 한수원 부담 강조 ... 요금체계 개선 준비

원전 가동중단 사태로 최악의 전력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윤상직 장관은 6월2일 새벽 <전력난 비상 블랙아웃 재연되나>를 주제로 방송된 KBS 심야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3년 여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전 정지에 따른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 등이) 인센티브 측면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5000kW 이상 사업자가 절전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누진율을 조정하면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체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제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뜻을 시사했다.

정부는 2013년 1월14일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다.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에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에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 등이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6월2일 하계 절전대책 공공기관 워크숍을 열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의무절전, 냉방온도 제한, 전력 사용량 감축 등 정부의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을 설명하고 전력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03>